

“다저스, 류현진이 필요해” “커쇼, 더 이상 에이스아냐”

스포츠 매체 ‘LA스포츠허브’가 류현진의 LA 다저스 재계약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20일 ‘OSEN’에 따르면 ‘LA스포츠허브’는 이날 “류현진이 다저스를 떠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류현진의 다저스 재계약 가능성을 높게 예측했다.

이 매체는 또 “다저스는 올 시즌 류현진의 활약으로 얻은 게 많다. 클레이튼 커쇼는 더 이상 에이스가 아니며 워커 블러는 1~2년 뒤 진정한 에이스가 될 수 있다.”면서 류현진은 다저스의 에이스로서 평균 자책점 1위에 등극했고 사이영상 투표 2위를 차지했다. 켈리파잉 오퍼를 받아들인 뒤 자신의 가치를 10배 끌어올렸다.”면서 류현진이 다저스에 왜 필요한 존재인지 설명했다.

지난 시즌이 끝난 뒤 다저스의 켈리파잉 오퍼를 받아들인 류현진은 올 시즌 14승 5패(평균 자책점 2.32)를 거두며 빅리그 데뷔 후 최고의 시즌을 보냈으며 사이영상 후보에 올라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LA스포츠허브’는 “류현진은 게릿 콜과 스티븐 스트라스버그에 이어 FA 시장에서 세 번째로 가치가 높은 투수다. 류현진은 오프 시즌에 여전히 많은 관심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며 “게릿 콜과 스트라스버그를 잡지 못하는 일부 구단들이 류현진에게 6년 계약을 제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다저스가 류현진의 나이와 부상 경력을 이유로 좋은 대우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였으나 결국 다저스가 류현진을 데려올 가능성이 더 높아보인다.”고 덧붙였다.

‘LA스포츠허브’는 다저스의 넉넉한 자금력과 류현진을 영입하기 위한 타 구단의 적극적인 행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류현진이 로스앤젤레스 생활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다저스가 류현진과 재결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매체는 마지막으로 “다저스가 게릿 콜과 스티븐 스트라스버그 영입 경쟁에 휘말리지 않고 발빠르게 움직여 류현진을 잔류시킨 뒤 차후 보강 과제를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 여자 골프, 2020 도쿄 올림픽 출전 내부 경쟁 치열

세계적인 강자들이 즐비한 한국 여자 골프계에서 누가 2020 도쿄 올림픽에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도쿄 올림픽 출전권은 2020년 6월 29일 발표되는 세계랭킹 기준으로 결정된다. 랭킹에 따라 총 60명의 선수가 도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놓고 경쟁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각 국가에서 세계랭킹이 높은 2명의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한다. 하지만 세계랭킹 15위 이내의 선수들은 국가별로 4명까지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다. 19일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랭킹 기준으로 올림픽에 3명 이상을 출전시킬 수 있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뿐이다. 세계랭킹 15위 안에 한국은 6명, 미국은 3명이 올라있다. 현재 상황이 이어질 경우 한국 선수 중에는 세계랭킹 15위 안에 포함되기도 올림픽 출전이 좌절될 수 있다. 따라서 올림픽까지 세계랭킹 관리도 신경써야 한다.

19일 현재 고진영(24·하이트진로)이 17주 연속 세계랭킹 1위를 질주하고 있고 박성현(26·솔레이어)이 2위로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2019 US여자

오픈에서 우승하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신인왕까지 차지한 이정은(23·대방건설)이 6위에 올라 있다. 이들 3명의 선수는 현재 추세로 보면 올림픽 출전이 확정적이다. 하지만 마지막 1자리를 놓고는 경쟁이 치열하다.

현재 한국 선수 중 세계랭킹이 4번째로 높은 선수는 11위 김세영(26·미래에셋)이다. 리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박인비는 12위, 김효주(24·롯데)가 13위이다. 11위 김세영과 13위 김효주까지의 랭킹포인트 차이는 0.15점 차이에 불과해 언제든지 순위가 뒤집힐 수 있다.

LPGA투어에서 활약 중인 선수 못지 않게 올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를 휩쓴 최혜진(20·롯데)도 주목해야 한다. 한국투어에서 5승을 올리면서 6관왕에 오른 최혜진은 다음 시즌 미국 무대에 도전해 보고 싶다고 각오를 드러내기도 했다.

최혜진은 현재 세계랭킹 25위로 한국 선수 기준으로는 11위다. 한국 무대에서의 기세에 LPGA투어 우승까지 더할 수 있다면 올림픽 출전도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르브론, 30개 전구단 상대 트리플 더블 ... NBA 최초

르브론 제임스가 대기록을 세웠다.

LA 레이커스는 19일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열린 2019~2020 NBA 정규시즌 오클라호마시티 썬더와의 경기에서 112-107로 이겼다. 이날 승리로 5연승을 질주하게 된 레이커스는 리그 선두를 지켰다.

르브론은 이날 경기 선발로 출전해 25점 11리바운드 10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이번 시즌 자신의 5번째 트리플-더블. 그는 4쿼터 종료 4분 8초 전 앤서니 데이비스의 점프슛을 이끌어내는 10번째 어시스트로 올 시즌 5번째이자 통산 86번째 트리플 더블(공수 3개 부문 두 자릿수)을 완성했다.

이날 트리플-더블로 르브론은 30개 전 구단을 상대로 트리플-더블을 달성하게 됐다. 이는 NBA 역대 최초의 대기록. 오스카 로버트슨, 러셀 웨스트브

룩, 제이슨 키드 등 다른 트리플-더블 머신 등도 달성하지 못한 기록이다. 현재 웨스트브룩이 지난 시즌까지 몸담았던 오클라호마시티를 제외한 29개 구단을 상대로 트리플-더블을 기록했고, 키드가 28개 팀을 상대로 기록하며 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제임스는 경기 후 제임스는 “전혀 몰랐다. 경기 끝난 뒤 프랭크 보겔 코치가 와서 ‘축하한다’고 하더라. 처음에는 턴오버(7개)가 많았던 걸 놀리는 줄 알았다. 그런데 진짜 이유를 듣고 나서 ‘꽤 멋진 걸’하고 생각했다.”며 “커리어 내내 내가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해준 코치들과 팀 동료들 덕분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임스는 이 밖에도 통산 득점, 평균 득점, 출전 시간 등 부문에서 현역 선수 중 1위에 올라 있다.



Jin Hyuk Lee
213-210-2898
735 E. 12th St., #308
Los Angeles

CA Insurance Agent #: 0G84555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이광연공인회계사

“재산관리와 증식을 도와드립니다”

32년 경력의 세무·회계·재정계획전문가

- 세금보고
- 감사대행
- 투자상담(Mutual Fund - 뮤추얼 펀드)
- 은퇴계획(Retirement Planning)
- IRA'S IRA Rollover
- 401(K), SEP, SIMPLE IRA
- 자녀대학 학자금 계획(College funding Plan)
- 상속계획(Estate plan)

Tel: (714)539-6444/5 Fax: (714)539-9261
9828 Garden Grove Blvd. #213, G.G, CA 92844
〈한미은행 옆, 김약국 2층〉